



# 새싹편지 10

## 10.04~05 :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제 4회 학술제 개최



수확의 계절인 가을, 우송대학교 캠퍼스에도 지난 봄부터 갈고닦은 학문의 결실을 볼 수 있는 학술제가 과마다 열렸다. 유아교육과는 10월 4,5일 3학년의 보육실습 보고회와 2학년의 실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는 [Problem-based learning]으로 "우송유치원 실외환경 만들기"란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번 학술제를 통해 후배들에게는 선배들의 교육과정과 실습과정을 보고 배우는 기회를, 선배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주는 기회가 되었다.

작년까지의 학술제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데에 집중하였으나 올해에는 과 동아리의 성과와 특성을 보여주고 동화 내용을 토대로 트릭아트와 포토존,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활동을 통해 유아교육과의 모든 학생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푸른이 유치원, 대전근로 복지공단 어린이집, 대전보건대학교 부속유치원 등 지역 유아교육기관의 유아들을 초대해 좀 더 알차고 풍성한 경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 학년별 활동

**1학년. 책갈피 만들기 :** 1학년들은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활동을 준비했다. 뒷면의 책갈피 무늬는 1학년 학생들이 만들고 앞면은 아직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써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원하는 책갈피를 고르고 직접 꾸미며 자신의 이름을 적어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데서 아이들은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하였다.

**2학년. PBL 발표 :** 2학년 학생들은 지난 여름학기 동안 "우송유치원 실외환경 구성하기"란 프로젝트를 학생이 직접 문제를 해결 해나가는 PBL 방식으로 진행했고, 결과물을 학술제에서 소개하였다. 선발된 6조는 더운 여름 고생한 것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추석 연휴에도 발표 준비를 했다. 힘들었지만 얻은 것이 더 많았다고 학생들은 말했다.

**3학년. 보육실습 보고회 :** 3학년 학생들은 여름학기동안 다녀온 보육 실습의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해 보고회를 준비했다. 기관 특성에 따른 장·단점과



현장과 이론의 차이점, 그리고 나의 실습 유형을 미리 알아보는 등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직접 설명을 해주었다. 그동안 어려웠던 선배가 만나 질문을 하고 조언을 하는 훈훈한 모습이였다. 뿐만 아니라 실습을 다녀온 학생들 간에도 정보 공유를 하며 다음 교육 실습을 대비하였다.

### 동아리 활동

#### 멀티미디어 동아리. "3D 동화"

멀티미디어 동아리에서는 3D기법을 이용해 만든 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멀티미디어 동아리는 유치원에서 해야 할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예비유치원 교사로서 그 기능을 연구하는 동아리이다. 멀티미디어 동아리는 학술제를 맞이하여 초대장을 제작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전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동화책을 3D동화로 만들었다. 유아들은 평소 보던 그림책을 안경을 끼고 3D로 보자 굉장한 호기심을 보이며 즐거워했다.



#### 다문화 동아리. "게임"

다문화 동아리에서 우송유치원 종일반의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게임을 진행하였다. 다문화 동아리의 특성에 맞춰 다문화에 대한 정의와 의의, 교재교구를 만드는 과정, 다문화 교재교구의 특징이 든 신문을 만들어 동아리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양한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놀이교구를 만들었으므로 영유아에게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유아문학연구회. "블랙라이트 & 인형극"



시청각실에서는 유아문학연구회가 준비한 블랙라이트 공연이 '송이'와 '우리'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무대 뒤에 숨어 있던 학생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 라이트를 켜다. 음악이 울리고 소품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동안 학생들은 아이들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자 가슴이 뛰고 긴장됐지만, 가면 속에 떨리고 두근거리는 마음도 잠시 묻어둔 채 맡은 역할을 수행했다. 관람하는 아이들은 '우와!'를 연발하기도 하고 큰 연령의 아이들은 '저거 뒤에 사람 있어~ 가짜야~'라고도 하며 즐거워 했다.



블랙라이트가 끝나고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의 동화가 흘러나왔다. 관람하는 아이들은 드소토 선생님이 여우에게 먹힐까 조마조마하며 눈도 깜빡이지 않고 공연에 집중했다. 일부 어린 연령의 유아들은 무서워하며 선생님에게 안겨 관람하기도 하고, 공연이 끝나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행이다~'하며 나가는 유아들도 있었다. 아이들이 공연에 몰입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자 공연을 하는 학생들이 더 신이 난 듯 보였다.

#### 교수학습연구 동아리. "화분 만들기"

교수학습연구동아리에서 운영한 나만의 화분 만들기 활동 모습이다. 교수학습연구동아리는 그동안 ESD 교육이라고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 그 기본이 되는 활동을 실천해왔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제발전을 교육에서 서부터 실천하자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동아리는 식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저탄소 교육을 실천하는데에 의의를 두고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교수학습연구 동아리, 전공 및 취업 동아리 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전공 및 취업 동아리 경시대회에서 교수학습연구 동아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회장인 이은혜 학생은 다음과 같이 수상 소감을 말했다. >

지난 10월 24일 수요일, 경시대회 본선이 열렸다. 총 30개의 팀 중 14팀이 본선에 올랐고, 우리는 본선에 합격한 후 1주일간 발표를 위한 대본을 만들고 PPT도 많은 수정을 거쳤다. 거의 나흘 밤을 새우며 발표를 준비했다. 발표 당일 가보니, 유아교육과의 발표가 마지막 순이었다. 2시간가량을 앞에서 발표하는 타과 학생들을 보니 정말 감탄할만한 기법을 사용해서 동아리 소개를 하고, 6팀 이상이 대본이 없는 상태로 외워서 발표했다. 처음에는 대본을 가지고 할 생각이었지만 그런 광경을 보고 대본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발표를 하러 단상에 나갔다.

우리의 PPT는 화려한 프레지나 영상기법을 사용

하지는 않았지만, 동아리의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를 비롯해 같이 참여했던 전이슬, 이기선 학생은 3등만 해도 만족한 만족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학과사무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우리 과가 1등이라는 소식이었다. 다른 동아리들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사이에서 1등을 했다는 것에 감격스러웠다. 그리고서 그 다음 주인 10월 31일 수요일에 시상식이 열렸다. 동아리 담당 교수님이신 성원경 교수님도 시상식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후배들도 함께하여 타과의 부러움을 샀다. 부상으로 태블릿 PC와 USB도 받았다. 밤을 새운 성과가 있었다며 모두 뿌듯해했다. 그리고 수상보다 더 값졌던 것은 이번 기회로 우리 동아리가 보완할 점을 찾았고, 많은 동아리의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동아리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 선배와 후배, 튜터와 튜티로 만나다.



2-B반 한수진

앞으로 1번의 튜터링만을 남겨 두고 있는 대략 8주간의 튜터링은 (선배가 후배에게 학업과 대학 생활에 관한 비법을 전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8월 29일부터 시작 됨)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아련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 같다. 5회의 튜터 교육을 받고 난 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튜터링을 한 건 며칠 되지 않았다. 하지만 후배들과 지내며 다시금 교직의 매력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필요한 튜터의 능력을 배우고 활용하며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서 얻은 내용은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큰 힘이 되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고, 교직과목을 글로만 배운 것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튜티들이 어려워하는 전공과목과 영어를 다루어서 튜티들에게는 미리 한번 예습, 공부해서 수업시간과 후에 불 시험에 도움을 주고 나 또한 후에 불 임용고시를 대비해 한 번 더 공부하는 일거양득의 기회였다.

튜터링 중간에 WILL 학습전략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튜티들은 각자 공부를 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좋아했다.

또한, 튜터링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도 상담하면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선?후배 간의 돈독한 사이를 만들어서 선배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후배는 선배들의 힘이 되어주는 계기를 만드는 좋은 시간이었다.

**10.05~06 : 유아교육과의 5기가 될 학생들, 수시 1차 면접 보다.**



10월 5일, 6일 사회복지관 103호에서 유아교육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수시 1차 면접을 진행했다. 유아교육과에 들어오기 위해 수시 1차에 지원한 학생들은 재학생들의 안내를 받아 접수하고 받은 종이에 자신이 생각하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며 대기하였다. 면접에 대한 긴장감이 가득한 학생들은 종이에 그리거나 작성한 뒤 자신이 준비해 온 종이를 보며 외웠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학생들이 있었는가 하면 떨지 않고 준비된 간식을 먹는 학생들도 있었다. 면접 도우미들은 자신이 면접 보러 왔던 때를 떠올리며 면접 보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하기도 했다. 면접 도우미 중 한 명은 대기하던 남학생에게 왜 유아교육과에 지원했느냐고 묻자 유치원교사가 꿈이었고, 유치원 봉사도 해보고 유아교육과에만 지원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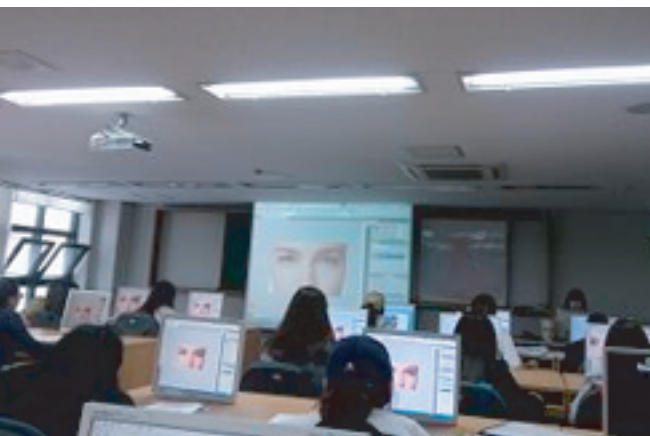
다는 말을 듣고 꼭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면접 보고 나오는 학생 중에서는 눈물을 보이는 학생들과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학생들, 담담하게 웃으며 나오는 학생들 그리고 얼떨떨한 표정의 학생 등 다양한 모습의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어떤 학생은 면접 도우미에게 “말할 때 약간 울먹거리면 감점이 되나요?”라고 물어볼 정도로 학생의 절실함을 느꼈다.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이 가족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대기하는 모습을 보며 유아교육과에 오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보였고 좋은 후배들이 많이 합격해 유아교육과가 우수학과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랐다.



**10.05, 19 : 멀티미디어 동화 제작하다.**



2학년 학생들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수업의 실재를 경험하고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IT 센터에서 장혜정 교수님께 교수매체제작 특강을 들었다.

10월 5일은 멀티미디어 동화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포토샵 기술을 배우고,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2주 동안 동영상 만들기 위해 스캔한 동화책을 수정하고, 음악을 고르는 사전 작업을 했다. 2학년 A반은 ‘해님 달님’이라는 책으로, B반은 ‘안녕, 달토끼야’라는 책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10월 19일은 무비메이커 활용 방법을 배운 뒤 조별로 편집해 온 동화 장면을 모아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만드는 사람들**

- 지도교수 : 성원경 교수님
- 학 생 : 3학년 김진희
- 2학년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 1학년 박지원